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고고학적 인식과 공간적 혼종성

Archaeological Perceptions and
Spatial Hybridity of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김해경

건국대학교 조교수

김 선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I. 서론

II.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공간적 혼종성 형성 과정

III.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공원, 신사, 발굴의 중첩 경험

IV. 일제강점기 보물고적 제94호 대구 달성의 행위 제약과 보존

V. 결론

국문 요약

대구 달성토성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공간적 성격이 재구성되며 다양한 변화를 축적한 장소로 팔립세스트적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달성토성의 혼종적 공간성과 각 시기별 이용 행태 및 물리적 변용 양상에서 교차된 관점을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1906년에 공원 조성 계획과 황대신궁 요배전 건립이 진행되었다. 1907년에는 공원조성이 본격화 되었고, 1909년에는 세키노 다다시의 고적조사가 있었으나 달성토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1913년 12월의 요배전 증개축공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비로소 가치가 인지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 달성토성은 대구부의 일본인 중가로 대구신사와 공원이 공존하여 공공공간과 종교공간이 혼재하는 특징을 보였다.

공간구성을 보면 진입부에는 수직적인 도리이와 등롱으로 대구신사의 시각성이 강조되었다. 진입부를 지나 조성된 평평한 원형공간은 조선인의 운동경기 장소로 이용되었고, 토성의 구릉지에는 산책로와 휴게시설이 도입되었다. 가장 안쪽의 대구신사에서는 종교적 제의뿐만 아니라 결혼식과 기우제등 일상성이 확산되었다. 1939년 대구신사의 확장에서 신원은 일본의 유명한 조원가인 혼다 세이로쿠가 담당했다.

1937년 대구신사는 국폐소사로 승격되었고, 1939년에는 달성토성이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되었다. 1940년 국폐명정관 건립과정에서 토성 훼손으로 현상변경 문제가 제기되었고, 원형복구가 제시되었다. 1941년에는 대형석표 2기를 건립하여 보존의 당위성과 행위제한을 표식했다. 이와 같이 대구 달성은 근대공원·문화유산·신사·공공적 성격이 중첩된 혼종 공간으로, 식민지 시기의 다층적 공간 경험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팔립세스트적 공간성을 해석하는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 : 대구 달성공원, 혼종적 공간성, 팔립세스트, 대구신사, 일제강점기 도시공간

I. 서론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달성 토성에 대한 문헌상 축성기록은 『삼국사기』에 ‘신라 점해왕(沾解王) 15년(261년) 달벌성을 쌓고 나마극종(奈麻克宗)을 성주로 삼았다.’에서 첫 기록이 확인된다. 『대구읍지』를 보면 고려시대 달성 서씨의 사전(賜田)으로 귀속되어 세거지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세종지리지』에서는 ‘읍석성(邑石城)은 군(郡) 서쪽 2리에 있다. 둘레가 4백 551보이며, 안에 샘이 둘이 있다.’라는 기록으로 존재가 확인된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아정유고(雅亭遺稿)』 ‘가야산기(伽倻山記)’에는 “성의 서북쪽에 흙언덕이 있는데 무너진 토성같으며 푸른 소나무가 뿔뿔이 있으니 여기가 달성이다.”라는 내용으로 토성이 무너져서 성곽 기능을 상실하였고, 송림으로 구성된 경관임을 알 수 있다(국립대구박물관 2014). 실제적인 토성의 존재 확인은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했다.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1914년과 1917년에 2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1917년 조사에서 토성 성벽 중 동문지 일대를 확인했다. 1968년의 문화관 건립을 위한 사전 발굴조사에서는 축조시기를 기원후 3세기로 도출했으나 축성 주체는 이견이 존재한다. 대구시에서는 2018년에 수립된 『대구달성 보존·활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달성 토성의 원형 복원, 역사관 건립, 시민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1,300억원 예산으로 2025년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하고,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중앙일보』 2025.6.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달성의 공원 기능과 문화유산적 가치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우선, 달성공원의 현대적 이용이 아닌 역사적 변천에 주목한 연구로는 달성의 입지와 풍수적 특성을 분석한 조호원(2021), 공원 내부의 가이즈카 향나무의 실체를 규명한 김중원·이정아(2018: 335~352), 달성공원을 직접적으로 다룬 박은아(2002: 131~154)의 연구가 있다. 문화유산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들은 역사적인 성벽 조사를 진행한 윤용진(1968: 500~501), 달성토성과 대구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 기반을 다룬 김세기(2018: 197~236), 달성토성과 달성서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구본욱(2023: 7~32),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해 달성의 특성을 규명한 이혁희(2024: 143~177) 등이 있다. 또한, 달성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 옥희정(2008),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언을 내놓은 이현태(2024: 297~324)의 연구도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달성 유적 자체에 집중하거나 공원적 기능 및 대

구신사의 입지를 간략하게 서술하는데 그쳤다. 더불어 1939년에는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된 사당은 언급이 없었다.

달성토성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다층적인 공간적 성격을 지닌 동시에 타국의 상징적인 종교 구조물이 입지한 장소였다. 특히 이용객에게 열린 공간일수록 시기별 필요에 따라 공간적 변형은 다각화되었고,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성이 작용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팔림세스트(palimpsest) 또는 양피지는 이미 적혀 있던 글씨를 긁어내거나 씻어내어 기록매체를 재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재사용되어 다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이때 기존의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덧씌워서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글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흐릿하게 남아 있기도 한다. 최근에는 ‘겹쳐진 시간의 층위’, ‘과거와 현재의 중첩’의 의미로 건축·예술·문학·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은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때에는 표층 아래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억, 흔적, 시간의 켜가 중첩된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대구 달성공원은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원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공간적 변형을 겪었으며, 그 흔적은 달성공원의 팔림세스트로 축적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달성토성의 혼종적 공간성과 내재된 교차적 시점의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각 시기에 작성된 측량지도와 도상자료를 통해 시기별 공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실제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기에 제작·유통된 발간엽서와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당시 공원 공간에서 이루어진 변형의 법제적·행정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행정자료 및 법령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동시대 잡지 및 신문기사의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Ⅱ.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의 공간적 혼종성 형성 과정

1. 달성공원의 조성과 공간적 성격

달성공원의 조성은 ‘달성공원기성회’의 조직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대구상공회의소칠십년사』에서는 1907년에 대구 이사청이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를 통해 ‘달

성공원기성회’를 조직하였으며, 부회장에 서병오, 간사에 이석진이 조선인으로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 1977). 『대구민단사』를 보면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으로 구성된 달성공원기성회의 취의서에 공원조성 목적을 “주민의 공락지(共樂地)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 이곳에 내유(來遊)하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대구부 1915). 기성회에서는 공원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복권을 발매하였고, 그 수익으로 달성 내부의 가시덤불과 억새풀을 잘라낸 후 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산책로와 운동장을 설치했다(上田義雄 1918).

1926년에는 달성토성 구릉지 상부인 언덕에서 바라보는 대구부의 조망이 훌륭하다고 서술했다(『동아일보』 1926.11.19). 이를 보면 1906년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이 구체화된 시점은 1907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대구의 농상공부 주사로 파견된 박중양의 대구읍성 훼손이 진행되었고, 서북성루였던 망경루가 달성공원으로 이전되었다(그림 2 참조).

근대적 측량으로 작도된 1:10,000의 1917년 발간 지도를 보면 공원의 공간 구성이 확인된다. 대구신사에 이르는 참도가 중심축을 이루며, 전면부의 달성토성에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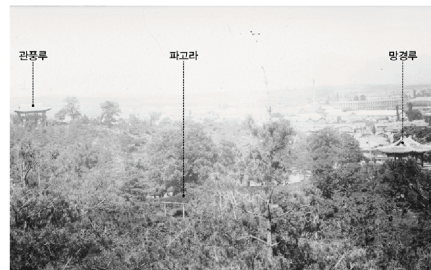
a: 1917년 지도의 달성공원 공간 배치



b: 1917년 지도의 관풍루와 망경루 위치



c: 1917년 유리건판 사진의 달성토성 수목 지지대와 등 의자
(소장품번호 : 건판 4845)



d: 1917년 유리건판 사진의 달성공원 시설물
(소장품번호 : 건판 36603)

[그림 1] 1917년 달성공원의 공간 구성(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요된 넓은 부지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다. 중심축을 따라 진입하면, 대구신사에 다다르고, 달성토성의 구릉지적인 지형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남쪽 능선에는 망경루가 자리하였고, 대구역 앞 경북도청 맞은 편에는 관풍루가 존치되어 있다(그림 1b 참조). 관풍루는 1917년 9월에 예산 800원을 들여 달성공원으로 이군했다(「조선시보」 1917.9.20, 「매일신보」 1917.9.29). 공원 시설의 도입 유무는 1917년에 촬영된 발굴 관련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c]와 [그림 1d]를 보면 토성 하부에서는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상부에는 경관 조성을 위한 식재 수목과 이를 지탱하는 지주목,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등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1917년과 1939년 지도를 비교할 경우, 달성공원 전체 공간 형태의 큰 변화는 없다. 1939년 지도에는 동북쪽 능선에 관풍루가 표식되어 있으며, 전면 해자기능의 하천이 정비되어 있다. 관풍루에 올라서 보는 동쪽의 대구 시가 조망을 경성 남산공원에서 바라보는 경성 시가지와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대구 풍광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각종 안내서에 소개되었다. 이후 달성공원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 등 사계절 내내 대구 시민의 주요 소요처로 자리잡았다(「별건곤」 1930).

요컨대, 일제강점기 달성공원의 공간적 특징은 달성토성 상부를 산책로로 활용한 점, 그리고 조선시대 대구읍성의 주요 건축물인 망경루와 관풍루를 공원 내부로 이전하여 휴게시설로 변용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 달성공원 공간 배치(1939년 지도)



b: 관풍루와 망경루 위치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번호: 민속 2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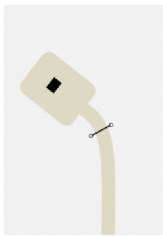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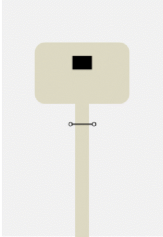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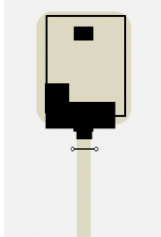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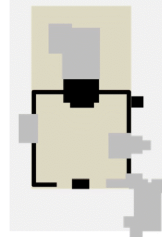
[그림 2] 1939년 대구 달성의 공간 구성

2. 대구신사의 조성과 공간적 의미

달성공원 중심부에 입지한 대구신사는 해방 이전까지 4차례의 외형적 변형이 진

행되었다(그림 3 참조). 대구신사 조성은 일본인의 대구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인의 대구 거주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대구를 남부 병참선으로 삼아 달성에 주둔하면서 시작되었다. 1896년 일본군 임시헌병대 본부가 설치되었고, 1903년에는 일본군 주차헌병대로 개칭되었다. 경부선 건설과 연계된 대구역 건립과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인 거주자는 1904년 800여 명에서 1905년 1,500명으로 급증하였다. 달성토성은 일본군의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청일전쟁 시기 야전지(野陣地)로 사용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신사 조성 논의가 제기되었다(「별건곤」 1930). ‘전통적으로 신을 공경하는 관념을 막을 길 없어 사당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경배하고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예를 드리려는 논의’가 있었으며, ‘예로부터 토속적 신앙인 성황당이 있어 경외의 대상’이었기에 진좌지로 선정되었다(岩下傳四郎 1941). 당시 경상북도 관찰사 이용익은 신사 건립 저지를 위해 달성토성내 토지에 뽕나무 식재를 주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5년 11월 3일에 황대신궁과 관련된 표목을 세우고 요배식을 거행했다. 이어 1906년 5월에 일본인 거류민단은 2,500원의 예산으로 황대신궁 요배전을 건립했고, 11월 천장절에 낙성 봉헌식을 진행했다. 요배전의 건축 재료인 노송은 기소(木曾) 지역 황실 소유 산림에서 특별 하사된 것이었지만, 건물 형태는 단순했다(그림 3 참조). 1913년에는 ‘대구신사’로 개칭되었고, 높은 곳에 요배전을 입지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해 12월 요배전 개축 공사 낙찰 기록이 확인되며(「매일신보」 1913.12.21), 1914년 봄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3월에 준공되었다. 1916년 당시 대구신사 재산은 목조 초가형 배전 1동, 사무동 1동, 부속 평가 1동과 도리이, 담장, 석단, 수세소였다(「조선시보」 1916.8.2). 1917년에는 대형 도리이가, 1929년에는 화강암 표비(表碑)가 기부되었다. 1921년에는 개축 논의가 있었지만(「조선시보」 1921.3.26), 1930년대 들어 대구신사의 3기 건축 공사가 추진되었다. 1931년에는 중전(中殿), 수전(手洗い), 옥책(玉垣), 계시관, 담장 및 사무소 신설 등이 예정되었으며(「부산일보」 1931.9.1), 1932년에는 높이 9m 규모의 석재 도리이가 기부·설치되었다(「조선신문」 1932.5.29). 1933년과 1934년에는 각각 26기와 16기의 석등이, 1935년에는 경신회에 의해 신마(神馬)가 봉헌되었다. 이때 만주사변과 상해사건 전사자를 위한 충혼비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구신사가 아닌 대명동 부영운동장에 건립되었다. 1935년에는 달성군청 산림과 직원들이 금액을 각출하여 대구신사로 거목을 이식했다. 서양측백나무(シロビバ) 수고 약 5.4m(18尺) 3그루, 가이즈카 향나무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연도	1906년 ~ 1914년	1914년 ~ 1931년	1931년 ~ 1938년	1939년 - 1945년
공간 구성	황대신궁 요배전	황대신궁 요배전/ 대구신사	대구신사	대구신사
개념 평면				
사진				

[그림 3] 대구신사의 변천 과정

(カイツカイブキ) 수고 약 3m(10尺) 1그루였다(「조선신문」 1935.4.10).

1936년 8월 1일의 신사제도 개정에 대한 칙령을 통해 ‘일도일열격사(一道一列格社)’·‘일읍면일신사(一邑面一神祠)’를 공포했다.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국폐소사(國幣小社), 도부읍면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을 받는 도공진사와 부공진사가 도입되었다(문혜진 2018). 대구신사는 1936년에 승격을 위한 봉찬회가 조직되었고, 1937년에 니혼마츠 코조(二本松孝藏)가 신사 건물을 설계하여 완성했다(「부산일보」 1937.1.26). 1938년에는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되어 임시 배전에서 제례가 진행되었으며(「조선신문」 1938.2.21), 이때 신사 주변 임원 조성은 일본의 유명한 조원가 혼다 세이로쿠(本多靜六)가 담당하였다(「조선신문」 1938.4.23). 혼다 박사는 기존 지형을 존중하면서, 공원으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적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지명 청부 입찰을 통해 본전, 배전, 신찬전(神饌殿), 사단(社壇), 신문(神門), 신사 수여소(授與所) 등 일체의 공사가 시행되었고, 고쿠라(小倉市) 출신 나카무라 도키지로(中村時次郎)가 책임 시공을 맡았다(「조선신문」 1938.5.5). 준공은 당초 1939년 9월로 예정되었으나, 실제 준공은 1939년 10월 15일에 이루어졌다.

대구신사는 달성토성의 구릉에 의해 위요된 입지에 1937년 조선내 8개 국폐소사 중 하나로 승격되어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3. 고적 제94호 대구 달성의 지정과 공간 구축

일본에서 1897년에 제정된 「고사사보존법」은 사사(社寺)에 속하는 건조물과 보물류를 ‘특별보호건조물’ 또는 ‘국보’로 지정하고, 유지·보존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재 지정 제도로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하 「보존규칙」)을 제정하여, 선별된 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하는 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국고 보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없었다.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었고, 1931년에는 총독부 외곽 조직으로 「조선고적연구회」가 결성되어 고적 조사 사업을 담당했다.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총독부 부령에 해당하는 「보존규칙」보다 상위의 제령(制令)으로 공포되었다. 「보존령」은 소유권 제한, 보물의 수출과 이출 금지, 자문기관인 보존회 설치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네 가지 범주로 문화유산을 구분지정했다. 제1조에서 보물 지정의 기준을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라 규정하여, 이는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적 관점에 따른 취사선택의 기준이었다. 명승·고적은 “폐총, 고분, 절터, 성터, 가마터 기타 유적, 경승지 또는 동식물·지질·광물로서 학술연구 자료가 되는 것”을 조선총독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정 권한이 식민 권력에 있음을 명시했다. 1938년 제4회 총회에서 신규 101종(총 457건)을 지정하면서 목적을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8.11.26). 대구 달성은 1939년 10월 18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3825호에 의해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범위는 달성정 294-1 공원지 32,427평, 294-2 임야 100평, 294-4 공원지 147평, 294-5 공원지 144평 등이며, 당 시 공원지는 국유지였다(그림 4 참조).

아울러 「보존령」은 문화유산 보존 기준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과 현상 변경 제한을 명문화하였다. 제5조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18조는 유적 발굴 및 발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총독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1941년 국체명징관 설립 과정에서 훼손된 성벽 일부를 조사할 당시 적용되었다.

이는 달성이 단순한 지역 명승지가 아니라, 일제의 문화유산 정책 속에서 제국적 의미가 부여된 기념 공간으로 편입됨을 보여주는 기제였다.



[그림 4] 대구 달성의 보물고적 제94호 지정(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 관보)

Ⅲ.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의 공원, 신사, 발굴의 중첩 경험

1. 공공성이 표출된 달성공원

1924년 7월에 발생한 대구 대홍수의 원인은 1923년에 달성 남쪽에 저류지 기능을 하는 천왕당못을 메우고, 대구 신시장을 만들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신정(新町) 일대는 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의 빈민굴로 홍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았던 달성공원은 신정교회당과 조양회관과 더불어 안전한 피난처로 기능하였다(「동아일보」 1924.7.25). 이는 달성공원이 단순히 휴식과 유희를 위한 공간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의 긴급 대피지로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26년 순종 승하 봉도식(奉悼式)에서 중요한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대구내 조선인 다수가 달성공원의 봉도식에 참석했으며, 대구부 관

리가 주관한 공식 의례는 동운정(東雲町)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동아일보」 192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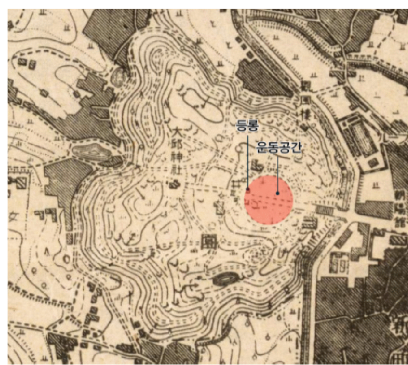
진입부를 통하면 다다르는 신사 전면의 원형 평지는 야구경기, 정구대회, 육상경기(「동아일보」 1920.6.30, 「동아일보」 1921.4.4, 「동아일보」 1922.5.6, 「동아일보」 1922.5.13, 「동아일보」 1924.5.4, 「동아일보」 1926.3.28, 「동아일보」 1927.4.7, 「동아일보」 1928.4.1, 「동아일보」 1930.8.27, 「동아일보」 1932.5.3, 「동아일보」 1933.4.29, 「동아일보」 1934.4.12, 「동아일보」 1935.6.30)와 엄복동의 자전거경기도 진행(「동아일보」 1921.5.7)이 되었다. 구체적인 경기 종목은 100m, 200m, 800m, 1,500m, 마라톤경주, 장애물경주, 일인일각, 스폰 경주, 원반투, 포탄투, 주고도(走高跳), 주폭도(走幅跳), 자전거, 단체경기, 농구, 배구, 덤블링, 바스켓볼, 체조, 율동체조 등 이었다(「동아일보」 1927.4.18). 1938년부터는 공원광장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그림 5 참조). 1937년 공설운동장이 대명동에 건립되면서 이후 대규모 운동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공원 광장은 전시행정 관련 행사장으로 변모했다(「동아일보」 1938.4.20).

일제강점이 시작되자 전국에는 벚꽃이 다량 식재되었고, 그 시기 잡지에서는 벚꽃 명소의 홍보가 보편적 기사였다. 경성이 제일 우선시되었고, 경상도에서는 대구의 달성공원, 동래의 온천장을 벚꽃 명소로 거론했다(「별건곤」 1929). 달성공원은 특히 ‘봄에는 - 사쿠라, 여름에는 녹음’ 명소 불리기도 했다(「별건곤」 1930). 이처럼 달성공원은 대구부에 제공된 공원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 당대의 담론에서는 공원을 한 지역 사회의 문화 수준과 문명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공원의 실제 이용 상황은 이러한 이상적 담론과는 괴리를 보였다. 1935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달성공원 입구 좌우에는 관상, 사주, 복서(卜筮)와 같은 점술 행위가 성행하여 이는 유원객의 산책을 방해하였고, 공원 내부에서는 물건을 파는 아동들이 방치된 채 활동하였으며, 대소변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오탁불결”로 표현하며, 공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35.7.21).

이처럼 달성공원은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지로 기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 봉도식과 같은 조선인의 집합 의례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대구부 주민의 일상적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인 거류민이 증가하고, 일본신사 규모가 커지면서 식민지 권력 규모도 현시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선인의 집합장소의 무대였음이 특징이었다. 더불어 통제되지 않은 상업행위와 불결한 오염문제는 공원



a: 조선인 체육대회(출처:『동아일보』 1932.5.3)



b: 1939년 달성공원의 운동공간(출처: 개인소장)

[그림 5] 달성공원의 이용행태

관리라는 근대적 담론의 기제가 되었다. 이는 달성공원이 식민지 도시에서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의미가 중첩된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2. 종교적 상징성을 담은 대구신사

대구신사에서 거행된 공식 제전은 춘계와 추계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4월 17일과 10월 17일에 정례적으로 거행되었다(『부산일보』 1915.9.24). 달성군에 설치된 헌곡 제전(獻穀齋田)은 황실 대례식에 곡물을 헌상한 바 있으며, 이를 존치하여 매년 수확된 쌀을 대구신사에 봉납했다(『부산일보』 1916.7.1). 곡물 헌상 의례와 더불어, 1930년대까지도 수확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는 신찬제(新嘗祭)가 지속되었다(『조선시보』 1930.11.23).

1917년 춘계 제전은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사자춤과 봉납된 관현악 연주가 진행되었다. 야간에는 동문정의 거주 일본인이 기부한 수백 개의 등롱이 시내와 공원의 뿔나무에 장식되어 불거리를 제공하였다(『부산일보』 1917.4.15). 1920년대 춘계 제전은 천변 임시경마장에서 열린 경마대회와 연계하여 열렸다(『조선시보』 1926.4.15). 추계 제전에는 신여의 행렬이 대구부청 주변 중요지점을 지나 대구신사로 환궁하는 동선이었다. 야간에는 등롱으로 장식한 화려한 경관과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흘간은 대구시 전체가 환락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다(『부산일보』 1926.10.15).

대구신사에는 도리이와 등롱만 봉납된 것이 아니라 부산 용두산신사를 그린 토사

파(土佐派) 화가 이시다 가가이(石田花外)의 사경화(寫景畵)도 봉납되었다(「부산일보」 1929.7.28). 가뭄 시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부산일보」 1929.8.8), -1930년대 결혼 의례가 간소화되면서 신사 앞에서의 결혼식이 성행하였다. 대구신사 앞 결혼 건수는 1926년 15쌍, 1928년 28쌍, 1929년 30쌍으로 증가하였으며, 혼례 형식은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양식을 취하였다(「부산일보」 1930.9.21). 한편, 정치적 성격을 띤 국위진전기원제(國威進展祈願祭)(「부산일보」 1931.12.15)와 사변에서 전사한 군마(軍馬)를 위령하는 군마제(「조선신문」 1939.10.19), 해군부회에서는 군국사상의 보급과 총검(銃劍)에 대한 인식 고양을 목적으로 탄환을 봉납한 사례도 확인된다(「부산일보」 1934.12.18).

달성공원과 병치되어 존립한 대구신사는 외부에서 대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대구 구경의 필수적 경유지로 인식되었다. 1925년 임원근(林元根)이 ‘영남지방 순회반감(嶺南地方 巡廻片感)’에서 기록한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나는 일찍이 ‘영남의 대구, 대구의 달성공원’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내가 본 달성공원은 승경(勝景)의 공원, 유원지(遊園地)의 공원, 공원의 공원이라기보다 신사의 공원, 도리이(鳥居)의 공원이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첫 감상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유연한 기분으로 산보를 한다는 느낌보다, 마치 ‘신사 참배’를 하러 들어가는 듯한 첫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사 건축을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누구나 달성공원에 발길을 들여놓으면 정면 입구에 웅장한 신사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개벽」 제64호, 1925.12.1)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달성공원에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인지되는 것은 자연 경관이나 유원지적 요소가 아니라, 정면에 위치한 도리이와 신사 건축물이었다. 즉, 공원의 진입부는 신사로와 연결되는 입구의 상징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공원이 단순한 근대 공원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과 근대적 유희 공간이 교차하는 혼종적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9년과 1936년 대구 관련 관광지도를 보면 대구부의 다른 공간보다 크게 표현되었지만, 달성공원과 대구신사가 혼존됨을 표기에서도 보여준다(그림 6 참조).



a: 달성공원의 이용행태
(출처: 일제강점기 엽서)



b: 1929년 대구 관광안내도
달성공원내 구조물(출처: 개인소장)



c: 1936년 대구 관광안내도
달성공원의 공간 구성(출처: 개인소장)

[그림 6] 엽서와 관광지도에 표현된 달성공원

3. 발굴을 통한 고고학적 가치의 확장

대구에 대한 최초의 고적조사는 1909년 8월 23일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1868-1935)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의 촉탁을 받아, 야스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와 함께 전국의 고건축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문화유산별 중요 가치를 서열화하여 특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甲-乙-丙-丁’의 네 단계로 구분했다(関野貞 1910). 대구에서는 문묘와 달성이 ‘乙’에 해당하는 특별보호 필요 대상이었으며, 경상감영의 외삼문은 ‘丁’, 선화당은 ‘丙’으로 분류되어 특별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경상감영은 구조적 형태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망경루는 달성공원으로 이전된 후였다. ‘丁’으로 분류된 경상감영의 외삼문이 ‘丁’으로 분류되었기에 달성공원으로의 이전에 무리가 없었다. 이는 고적조사에서의 가치 서열화에 따른 구분은 이후 건축물의 존치와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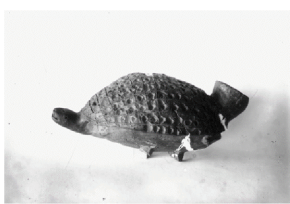
1913년 12월 10일에는 황대신궁 요배전 공사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되어 신고되



a: 경상감영 외삼문 유리건판 사진
(소장품번호 건판 265)



b: 망경루 유리건판 사진
(소장품번호 건판 000273)



c: 달성토성에서 발굴된 거북이모양 토기 유리건판 사진
(소장품번호 건판 25781)

[그림 7] 달성공원의 이용행태(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었다. 발견 당시 조선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도기이며, 거북모양, 높이는 1촌, 길이는 6촌 정도이고, 술병, 혹은 물그릇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그림 7c 참조).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발견 당시 파손된 채로 출토되어 일부가 보완되었으나, 하부 파편과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정인성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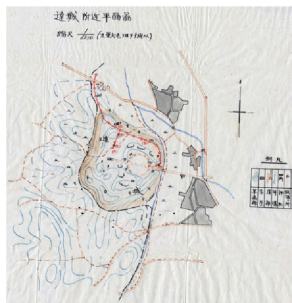
도리이 류조는 1914년과 1917년에 달성토성을 조사했다. 1914년에는 대구 신사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절개된 성벽에 대하여 긴급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사진을 보면 진입부에 해당하는 성벽이 절취된 모습을 보인다(그림 8a 참조). 그는 성벽 절개 지점 중에서 남천쪽의 외측 기저부를 조사하였고, 이곳에서 남천과 나란히 흐르는 좁은 수로의 높이까지 성벽의 단면을 정리하여(有光敎一 1959), 신라의 성벽 축조 이전에 형성된 문화층을 확인하였다(咸舜燮 2012). 1917년 조사는 동측 입구의 성벽, 성내 중앙부, 북측성벽 외부, 북쪽 모퉁이에서 돌출된 구릉 등 4지점에서 진행되었다. 1914년 이미 진입로 확장공사로 동측 입구의 남북 측면 및 바닥이 굴착되었고, 대구신사의 증개축으로 중앙부가 훼손된 상태였다(有光敎一 1943). 유물은 동물뼈,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1914년 발굴 자료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1917년 조사 내용을 보면 대구 신사의 주요 참도 개설로 훼손되어 노출된 상태라고 했다. 이때 조사 내용을 대구 상정(上町) 재향군인분회 사무소에서 ‘유사이전의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달성토성의 축성은 경주 반월성과 같은 시대라고 했다(「부산일보」 1917.12.14). 도리이 류조는 본질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동조한 관학자였다. 경주 월성과 달성토성의 삼국시대 이전 문화층의 양상은 한문화(漢文化)의 일방적 영향(藤田亮策·梅原末治 1923)이 아니라 아시아 북방과의 교류를 통한 내적 성장의 결과가 반영된 것(鳥居龍藏 1925)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기반을 둔 것으로, 철저히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어 확산되지 않았다. 한국고고학계에서 도리이 류조의 학설은 관련 분야의 논점이 형성될 때까지 거의 거론되지 않았거나, 영향력이 미미하였다고 평가받았다(咸舜燮 2012).

달성토성 조사는 일제강점기 이래 부분적인 발굴과 지표조사가 반복되어 왔고, 성벽 축조 공정이나 성내 시설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정밀 지형 측량과 비파괴 조사가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종합적인 정비 기본구상이 수립되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연속 보고서는 달성토성 자체보다 주변 고분군과 권역 유적의 조사 성과에 집중되었다. 방대한 조사 성과 축적은 성곽·분묘·취락이 하나의 체계를 갖춘 지역사 연구의 토대로 작동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진행된 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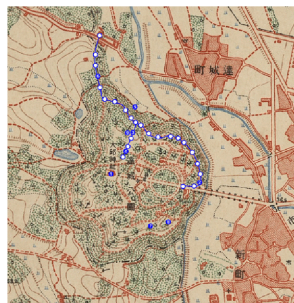
적인 달성토성의 발굴조사에서는 매장유산이 확인되어 고고학적·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영남일보 2025. 03.25).



a: 1914년 유리건판 사진의 달성공원
진입부(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2191)



b: 도리이 류조가 작성한
달성토성 발굴 도면
(출처: 국립대구박물관, 2014)



c: 1917년 지도에 표시한 발굴 위치

[그림 8] 도리이 류조의 조사 내용

Ⅳ. 일제강점기 보물고적 제94호 대구 달성의 행위 제약과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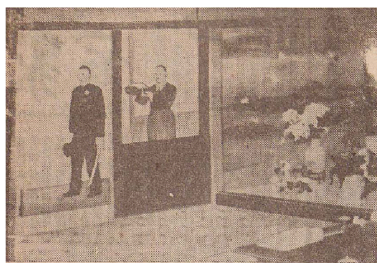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른 현상 변경

1938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은 제3차 조선 교육령 개정을 앞두고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의 세 가지 이념을 황국 신민의 기본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를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로 발표하였으며, 1938년 3월 3일 공포된 제3차 조선 교육령의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제국 이념의 고취는 1939년 이후 대구 지역에서도 가시화되었다. 같은 해 4월 29일자 「조선신문」에는 대구신사 경내에 1940년 황기(皇紀)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체명징관’ 건립 주장이 실렸다(「경성일보」 1939.4.29). 1940년 1월에는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조선신문」 1940.1.20). 그해 2월에는 경북도회가 국체관념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국체명징관 건립을 촉진한다고 했다(「동아일보」 194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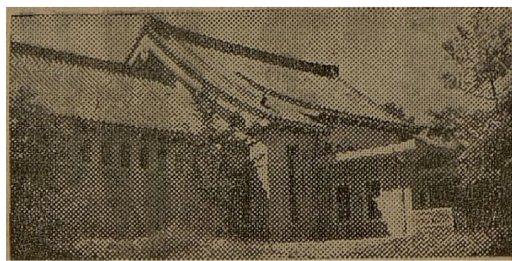
국체명징관 건립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행사도 보도되었다. 1940년 8월 7일에 지

신제가 거행되었고(『매일신보』 1940.8.7), 그 해 12월 19일에 상량식이 진행되었다(『조선신문』 1940.12.19). 1941년 5월에는 일본 내지의 저명한 화가 이소다 나가아키(磯田長秋)가 제작한 「교육칙어를 내리는 장면」이 완성되어 조만간 대구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했다(『매일신보』 1941.5.27). 작품내용은 궁중어학문소(宮中御學問所)에서 명치대제(明治大帝)가 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公)와 문부대신 요시카와 히데노부(芳川男)에게 친히 교육칙어를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외에도 여러 화가들의 작품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이어졌다.

국체명징관의 건립은 1939년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된 법제의 영향을 받았다. 1940년 9월 15일의 조선총독부의 보고 문건은 건물 건설 과정에서 총독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절취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대구를 방문한 가야모토 모리토(樞本杜人)가 작성했다. 11월 19일에 전달된 총독부 답신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성곽 절토가 있었으나 고적의 현상이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보존령」 제5조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훼손된 부분은 달성 남측 성벽의 동쪽 끝부분으로, 지정 지역 내 달성정 294-1 구역에 해당한다. 건평은 146평이지만 부지로 개척된 면적은 동서 45칸, 남북 20칸이었다. 국체명징관 후면은 높은 성벽에 접해 있었으므로, 근로봉사대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를 평탄하게 조성하려 하였고, 이미 동서 35칸에 걸쳐 성벽의 절반가량을 깎아내 내부의 석축이 노출된 상태였다. 제1도와 제2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파괴 정도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은 성곽의 핵심 구조물로, 이를 상실할 경우 성의 성립 의의 자체가 훼손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훼손된 성벽에 대한 원형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진행 시 조선총독부 관계자의 현장 감독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1940년 12월 26일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물 건립이므로, 공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절취만을 시행



a: 국체명징관에 기부된 벽화
(출처: 『매일신보』 1941.5. 27)



b: 국체명징관의 준공
(출처: 『경성일보』 1941.9.10)

[그림 9] 국체명징관의 구성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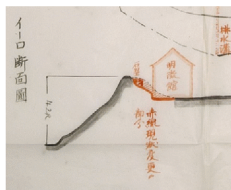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상북도에서는 1941년 5월 26일에 「대구달성성벽 복원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복구할 성벽은 60m, 측구 석단 연장 70m로 공사비는 587원으로 상정했다(그림 10e 참조).

달성 토성 훼손은 1940년 국체명징관 건립 이전에도 제기된 사안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서신자료에 따르면, 1923년 당시 달성공원에서 동문 좌측 토루(土壘)가 절취되어 저지대 매립과 30칸 이상 수목 벌채가 있었다. 다나카 주조(田中十藏)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주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에게 해당 조치가 고적과 명승의 보존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한 문서가 남아 있다. 회신내용은 1921년에 이미 협소한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 성벽 일부가 절취되어 도로폭이 확장되었으나, 진입부의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동쪽 시가지 조망 확보 차원에서 교토부 기술자의 설계로 도로 개착과 성벽 절취를 진행했고, 내부의 밀집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식했다. 절취된 토사는 공원 외부 시장으로 통하는 도로 정비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때 진행된 토성 훼손과 수목 벌채 과정에서는 달성토성에 대한 별다른 보존 조치는 없었다(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서류 1923.6.14).



a: 1941년 작성된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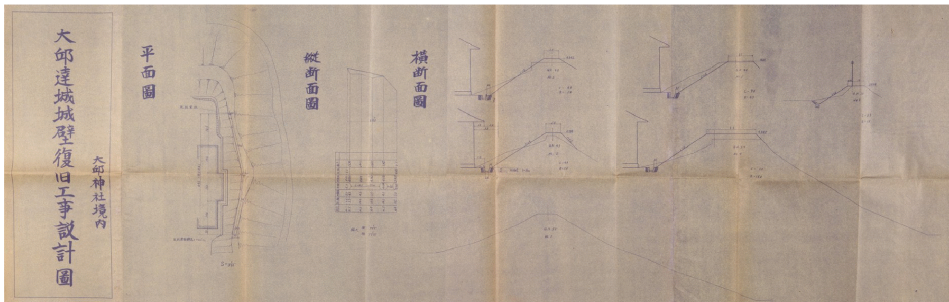
b: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의 상세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F009-001-005-001)



c: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의 첨부사진a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20099)



d: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의 첨부사진b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20100)



e: 「대구달성성벽 공사설계도」(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70-019-005-001)

[그림 10] 달성토성과 국체명징관 건립으로 인한 달성토성의 훼손

이는 1939년 「보존령」에 따라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됨으로써, 달성토성이 현재 까지도 문화유산 현상변경 절차와 같은 법적·제도적 영향권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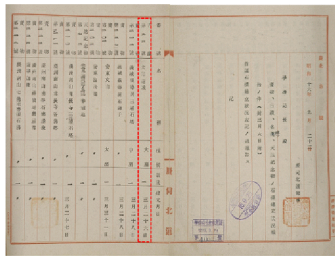
2. 보존과 가치를 표출하는 석표 설치

조선총독부는 1933년 「보존령」 제정 후 1938년경 부터 광복 직전까지 문화유산에 관한 석표를 제작하여 설치했다. 석표는 고적이 입지한 지역에 설치하여 고적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부주의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조선총독부의 고적에 대한 관리 방식중 하나였다. 이때 보존·관리 업무를 맡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과 고적이 입지한 행정구역 관할의 각 도와의 행정절차로 진행되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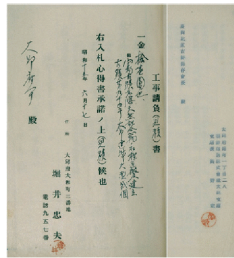
[표 1] 석표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각 도 통첩	각 도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조사보고 및 예산 신청	조선총독부 재무국이 각 도에 통첩	각 도는 배부예산으로 석표 건립 후 학무국에 건립 완료 보고
석표 건립 대상 목록 제시/ 석표 건립 비용 조사 후 보고 요청/ 해당 조사비용에 근거한 석표 건립 예산 신청	석표 제작·운반·건립 비용 견적서	조선총독부 재무국 각 도에 석표 예산 배부 / 석표 완료 후 보고 요청	석표 건립 위치도와 석표 사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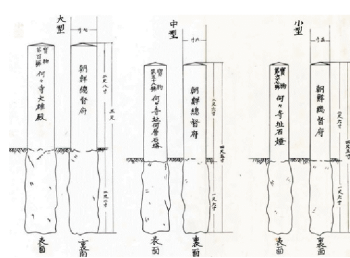
1934년의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의 제1회 총회에서는 심사와 토의 결과 보물 210건, 고적 21건, 천연기념물 21건을 보존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석표를 설치하여 지정 사실을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을 금지시켰다(「조선일보」 1934.5.4). 이후 석표는 문화유산 관리의 핵심 장치로 강조되었는데, 1938년 기사에서는 석표를 “고적의 파수꾼”이라 표현하며 각 도에서 예산을 제출하였다고 하였다(「조선일보」 1938.1.11). 같은 해 석재 제작비로 332개에 총 5,652원이 배정되었다(「동아일보」 1938.5.25). 제4회 총회에서는 보물 고적 지정은 신규 지정 101종을 포함하여 총 457건으로 확대하였다. 이때 지정 목적은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이 고적 애호를 통해 향토애를 고취하고 국토존중의 정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동아일보」 1938.11.26). 보물 고적 지정이 확대될수록 석표 건립은 지속되었다. 석표 설치 사업은 1939년에도 계속되어,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각 도



a: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044-004-001-001)



b: 석표 설치 견적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044-010-005-001)



c: 석표 양식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044-010-005-002)

[그림 11] 석표 양식(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주요 유구에 대해 석표 818개를 제작하였다(『동아일보』 1939.1.10). 학무국 통첩에는 석표 양식이 첨부되었는데, 이는 석질·형태·치수·각자(刻字)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크기는 대·중·소로 구분했다(그림 11c 참조).

대구 달성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석표 제작 완료에 관한 보고 건』(1940.11.6)이 남아 있다. 석표 건립 예산이 청구되어 입찰이 진행되었고, 호리이 다다오(堀井忠夫)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달성토성에는 석표 양식 중 대형 2기이며, 건립일은 3월 26일로 기재되어 있다(그림 11a 참조). 그러나 현재에는 석표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V. 결론

대구 달성공원은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간의 성격이 재구성되는 다양한 공간적 변형을 거쳐 왔으며, 그 흔적들은 달성공원의 팔립세스트로 층위화되어 축적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달성토성이 지닌 혼종적 공간성과 그 속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대구 달성에 대한 최초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주로 대구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요도를 등급화하는 과정에서 경상감영 외삼문이 ‘丁’등급으로 분류되어 이후 달성공원으로의 이전 근거가 되었다. 이어 1913년 요배전 공사에서 거북 모양 토기가 발견되었으며, 1914년과 1917년에는 대구신사 진입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발굴 조사가 수행되었다. 일제강

점기 발굴조사는 달성토성의 고고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대구신사 건축 및 확장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물을 통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둘째, 달성토성 내에 대구신사가 입지하게 된 배경에는 경부선 증설과 대구역 건설로 인한 일본인 거류자의 증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신사 건립에 그치지 않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근대적 공원 조성의 맥락 속에서 신사와 공원이 병립하는 특성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신사는 달성토성에 의해 위요된 공간적 형태를 지니면서 전면 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나아가 달성공원의 조성은 이용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공간 활용의 폭을 더욱 확장시켰다.

셋째, 달성공원은 달성토성의 구릉지를 산책로로 활용하고, 대구읍성과 경상감영의 부속 건물을 공원 내부로 이전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원 내에서는 휴게시설로 그 기능이 변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산책로 주변에는 의자와 파고라가 설치되어 근대적 공원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1938년 대구신사 확장 시에는 동경의 근대 조원가 혼다 세이로쿠가 공원과 연계된 신사의 임원(林園) 설계를 담당하였다.

넷째, 달성공원의 이용 양상을 살펴보면, 신사 전면의 원형 운동장에서 조선인이 주최하는 운동 경기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40년 대구신사가 확장되면서 공원의 전면성은 점차 약화되고, 신사로 진입하는 관문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더불어 대구신사에서는 춘계와 추계 제례뿐 아니라 결혼식, 기우제, 전몰 위령자 참배, 황태자 탄생 기념행사, 포탄 헌납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종교 공간이 점차 대구 시민의 일상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1933년 제정된 「보존령」에 따라 1939년 달성토성은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지정 목적은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달성토성이 지닌 조선의 역사가 아닌 식민지 일본의 관점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1940년에는 달성 토성내부에 국체명징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설계와 함께 기초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달성토성의 기저부가 훼손되었다. 당시 「보존령」 제5조에 따라 현상 변경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현상 변경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현장 조사 이후 1941년에는 복원공사 설계서가 제출되면서 국체명징관 건설이 진행되었다.

일곱째, 1940년부터 보물고적 제94호인 달성에 이를 알리기 위한 석표 건립이 진행되었다. 석표는 ‘고적의 파수꾼’으로 불리며, 고적에 대한 애호와 존중의 정서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대구 달성에는 대형 석표 두 기가 세워졌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달성토성은 일제강점기 동안 단순한 근대 공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대구신사·공공적 성격이 공존하는 혼종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달성토성에서 전개된 다양한 행위 속에서도 교차된 관점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달성토성이 지닌 팔립세스트적 성격을 해석한 데에 의의를 둔다.

투고일 2025. 8. 29 | 심사완료일 2025. 9. 20 | 게재확정일 2025. 10. 1

- 関野貞, 1910, 『朝鮮藝術之研究』, 度支部建築所.
- 구본옥, 2023, 「대구의 달성토성과 달성서씨」, 『한국학논집』93.
- 국립대구박물관, 2014, 『대구·달성유적 I-달성 조사보고서』.
- 김세기, 2018, 「대구지역 고대정치체의 형성기반과 달성토성의 위상 -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 『대구사학』 1(132).
- 김중수, 2020,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헤리티지:역사와 과학』52(2), 국립문화재연구원.
- 김종원·이정아, 2018, 「일제강점기의 가이즈카항나무의 실제 대구 달성(達城) 사적지의 노거수 두 그루를 사례로」, 『한국학』41(2).
- 남익희, 2020, 「대구 달성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아외고고학』37.
- _____, 2022,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고분군 자료 공개와 활용」, 『고고학지』28.
- 대구광역시, 2018, 『대구·달성 보존·활용 기본계획』.
- 大邱府, 1915, 『大邱民團史』.
- 대구상공회의소, 1997,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
- 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달성토성 정비·활용 시범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9a, 「대구 달성 I」.
- _____, 2019b, 「대구 달성 II」.
- 문혜진, 2018, 「식민지 조선으로의 신사신도의 유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학』41(2).
- 박은아, 2002, 「달성공원(대구)」, 『靑藍史學』 5.
- 삼한문화재연구원, 2022, 『대구 달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윅희정, 2008,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역사적인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진, 1968, 「大邱 達城 城壁調査」, 『美術史學研究』1(100).
- _____, 1990, 「韓國初期鐵器文化에 관한 研究-大邱地方에서의 初期鐵器文化-」, 『韓國史學』11.
- _____, 2007, 「달성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達城 잊혀진 유적의 재발견』, 향토역사관 개관 10주년 특별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 이혁희, 2024,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 달성의 특징」, 『중앙고고연구』44.
- 이현태, 2024, 「대구 달성 유적의 정비·활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白山學報』128.
- 정인성, 2023, 「대구 달성의 성격과 가치」, 『대구 달성의 역사·고고학적 성격과 문화유산 가치』, 대구 달성(사적) 학술세미나.
- 조호원, 2021, 「대구 달성의 입지와 풍수지리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咸舜燮, 2012, 「日帝強占期 鳥居龍藏의 慶州月城 및 大邱達城 調査에 대하여」,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허이주, 2016, 「대구 달성토성에 해자를 찾아주자」, 『도시문제』51(577).
- 藤田亮策・梅原末治, 1923,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 上田義雄, 1918, 『大邱案内』.
- 辻子実, 2003, 『侵略神社』, 東京: 新幹社.

岩下傳四郎, 1941, 『大陸神社大觀』, 大陸神社聯盟.
 有光教一, 1943, 「石器時代の大邱」, 『大邱府史』第三特殊編.
 ———, 1959, 「慶州月城・大邱達城の城壁下の遺跡について」, 『朝鮮學報』14.
 烏居龍藏, 1925, 「濱田・梅原兩氏著『金海貝塚報告』を読む」, 『有史以前の日本』.

-신문기사-

「경성일보」 1939년 4월29일 기사.
 「경성일보」 1941년 9월10일 기사.
 「동아일보」 1920년 6월30일 기사.
 「동아일보」 1921년 4월 4일 기사.
 「동아일보」 1922년 5월 6일 기사.
 「동아일보」 1922년 5월13일 기사.
 「동아일보」 1924년 5월 4일 기사.
 「동아일보」 1924년 7월25일 기사.
 「동아일보」 1926년 3월28일 기사.
 「동아일보」 1926년 5월 3일 기사.
 「동아일보」 1926년11월19일 기사.
 「동아일보」 1927년 4월 7일 기사.
 「동아일보」 1927년 4월18일 기사.
 「동아일보」 1928년 4월 1일 기사.
 「동아일보」 1930년 8월27일 기사.
 「동아일보」 1932년 5월 3일 기사.
 「동아일보」 1933년 4월29일 기사.
 「동아일보」 1934년 4월12일 기사.
 「동아일보」 1935년 6월30일 기사.
 「동아일보」 1938년 4월20일 기사.
 「동아일보」 1938년 5월25일 기사.
 「동아일보」 1938년11월26일 기사.
 「동아일보」 1939년 1월10일 기사.
 「동아일보」 1940년 2월25일 기사.
 「매일신보」 1913년12월21일 기사.
 「매일신보」 1917년 9월29일 기사.
 「매일신보」 1940년 8월 7일 기사.
 「매일신보」 1941년 5월27일 기사.
 「부산일보」 1915년 9월24일 기사.
 「부산일보」 1916년 7월 1일 기사.
 「부산일보」 1917년 4월15일 기사.
 「부산일보」 1917년12월14일 기사.
 「부산일보」 1926년10월15일 기사.

「부산일보」 1929년 7월28일 기사.
「부산일보」 1929년 8월 8일 기사.
「부산일보」 1930년 9월21일 기사.
「부산일보」 1931년 9월 1일 기사.
「부산일보」 1931년12월15일 기사.
「부산일보」 1934년12월18일 기사.
「부산일보」 1937년 1월26일 기사.
「조선시보」 1916년 8월 2일 기사.
「조선시보」 1917년 9월20일 기사.
「조선시보」 1921년 3월26일 기사.
「조선시보」 1926년 4월15일 기사.
「조선시보」 1930년11월23일 기사.
「조선신문」 1932년 5월29일 기사.
「조선신문」 1935년 4월10일 기사.
「조선신문」 1938년 2월21일 기사.
「조선신문」 1938년 4월23일 기사.
「조선신문」 1938년 5월 5일 기사.
「조선신문」 1939년10월19일 기사.
「조선신문」 1940년 1월20일 기사.
「조선신문」 1940년12월19일 기사.
「조선일보」 1934년 5월 4일 기사.
「조선일보」 1935년 7월21일 기사.
「조선일보」 1938년 1월11일 기사.
「중앙일보」 2025년 6월23일 기사.
『개벽』 64, 1925년12월 1일 기사, “嶺南地方 巡廻片感”.
『별건곤』 20, 1929년 4월 1일 기사, “地上縱覽 朝鮮 各地 꽃 品評會 - 요새에 피는 八道の 꽃 이야이”
『별건곤』 33, 1930년10월 1일 기사, “大邱大邱大邱, 沿革 名勝古跡”.

Archaeological Perceptions and Spatial Hybridity of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Hai-Gyoung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Sun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e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accumulated diverse spatial transformations from the Korean Empire period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by embody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alimpsest.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e hybrid spatiality of Dalseong Fortress by examining the overlapping perspectives found in its uses and physical transformations across different periods.

In 1906, a park construction plan and the building of the Hwangdaesingung Worship Hall were initiated. The park development was formalized in 1907, and although Tadashi Sekino conducted an archaeological survey in 1909, Dalseong Fortress received little attention at the time. Its historical value was first recognized in December 1913, when artifacts were unearthed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Worship Hall.

During the 1910s, the Dalseong area reflected the growing presence of Japanese residents in Daegu, as Daegu Shrine and the public park coexisted—resulting in a space where the public and the sacred overlapped. In terms of spatial composition, the entrance was marked by vertical torii gates and stone lanterns that emphasized the visual prominence of Daegu Shrine. Beyond the entrance, a flat circular plaza served as a sports ground for Koreans, while walking trails and

resting facilities were introduced along the fortress's slopes. At the innermost section, Daegu Shrine became not only a site of religious rituals but also of everyday activities such as weddings and rain-praying ceremonies. In 1939, the shrine's garden expansion was designed by Honda Seiroku, a renowned Japanese landscape architect.

Daegu Shrine was elevated to a Kokuhei Shōsha (nationally supported shrine) in 1937, and Dalseong Fortress wa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and Treasure No. 94 in 1939.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kutai Meishinkan (National Polity Hall) in 1940, the fortress was damaged, leading to discussions on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In 1941, two information boards were erected to indicate preservation principles and restrictions on alteration.

Thus, Dalseong in Daegu represents a multilayered space where modern park, cultural heritage, Shinto shrine, and public functions converged, revealing the complex spatial experiences of the colonial period.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pretive significance of such palimpsestic spatiality.

Key words : Daegu Dalseong Park, Hybrid Spatiality, Palimpsest, Daegu Shinto Shrine, Colonial Urban Space